



[뉴스]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넘어야 할 과제는 02



Economy

코스피	3148.45 (-3.73)	코스닥	976.63 (-11.16)
금리 (2년 국채)	0.969 (-0.009)	환율 (원/달러)	1097.30 (+7.50) (11일)

SAMSUNG 업사이클링 스크린 LG 재활용 소재 SK 탄소배출 제로

CES도 친환경이 화두... 韓 기업 ESG 표준되다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文대통령 2021 신년사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새시대 선도국가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축년(辛丑年)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0년, 신종 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우리 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다”며 지난해 한국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해 3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점, 지난해 12월 수출의 경우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는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100조원 규모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 추진 ▲30조5000억원 규모 일자리 예산 1분기 내 집중 투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4만개 조성 등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한국판 뉴딜을 통한 새 성장동력·양질 일자리 창출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통한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 구체화 등 전략도 언급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삼성,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LG, 재활용 소재 대거 활용 등 기업들 올 CES서 친환경 강조 SK, 탄소·폐기물 제로 목표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해 매진

세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가속화한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와 공생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확고해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TV 사업 비전을 ‘스크린 포 올’로 정하고 사회 기여 수준을 더 높여겠다고 밝혔다.

스크린 포 올은 종전에 ‘스크린 에브리웨어’를 통해 스크린을 모든 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서 벗어나, 스크린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TV 제품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적용한 포장재를 전면으로 확대하고 태양전지를 이용한 친환경 리모컨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으로 탄소 배출을 연간 2만5000t을 줄이는 계획도 넣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환경 문제에 힘을 쏟아 큰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9종에 대해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았고, 업계 최초로 화성 사업장이 ‘물 발자국 인증’도 취득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그린센터에 있는 친환경 설비.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다. CES2021에서 신형 올레드 TV를 발표하면서 카드뮴 등 발암물질 포함 부품을 쓰지 않고, 친환경 요소를 인증받은 패널을 사용하며 사운드바 제품은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를 대거 활용했다며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포장재도 친환경 소재로 대체했다.

GS칼텍스도 CES2021에 처음 참가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선언한다. 주유소를 전기와 수소차 충전 등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고, 카셰어링 등 모빌리티 인프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에너지 플러스 허브 삼방’을 조성해 실제 사업을 개시한 상태다.

SK는 CES2021에 불참하는 대신 SK이노베이션이 350명 규모 참관단을 꾸려 ‘ESG’ 경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경영 계획인 ‘그린벨런스 2030’을 위해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겠다는

의지다. SK그룹은 올해부터 전사적으로 친환경 경영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6개 계열사가 함께 RE100에 가입해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SV 2030’으로 친환경 경영 계획을 구체화했다. RE100 완수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 폐기물 매립 제로 등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도 주요 과제다. 여러 사회 구성원들과 동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 글로벌 경영계와 발 맞춰 국내 기업들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스마트팩토리 특화, 기술 지원에 상생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을 이어온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자상한 기업’ 7호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노조 허용과 경영 승계 중지 등



행복상자. /행복얼라이언스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SK그룹도 ESG 경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이다. 최태원 회장은 오랫동안 ▶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최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행복도시락’ 사업이 대표적, 사회적 기업 투자도 지속하며 ‘소백’을 연례 행사화 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수펙스 추구협의회에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하며 경영 투명화를 공식화했다. SK텔레콤 중간 지주사화 등 지배구조 개편 준비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하는데에는 사회적 지지와 도움이 있었던 만큼, ESG 경영을 통해 일부를 환원하겠다는 의지”라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ESG 경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주식시장 큰손 된 동학개미, 하루 4.4조 폭풍 매수

코스피 개인 순매수, 사상 최고 삼성전자 사상 첫 9만고지 넘어 대형주 쏠림현상에 변동성 확대

증시에서 ‘동학개미’가 또 한 번 신기록을 써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11일 하루에만 4조48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주식시장 ‘큰손’의 입지를 다졌다.

이날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4797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코스피 역사상 개인 순매수 최대 규모다. 이전 기록은 지난해 11월30일에 기록한 2조2205억원이다. 그때보다 두 배를 더 사들였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조7377억원, 7193억원 규모로 순매도했지만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1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시장의 총 거래대금은 44조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200원(2.48%) 오른 9만1000원에 마감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장중 9만6800원까지 오르며 10만원을 넘었지만 9만1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뉴스1

(20조1637억원)까지 합치면 양대 주식시장에서 64조2331억원이 거래됐다. 전 거래일(8일) 기록한 60조1895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3260선까지 급등했다가 기관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내며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였다. 등락을 반복하

다 결국 하락전환하며 전 거래일보다 0.12%(3.73포인트) 하락한 3148.45에 거래를 마쳤다. 개미들이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동학개미들은 이날 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들였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유, 현대모비스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9만원 고지를 넘어섰다. 전 거래일보다 2.48%(2200원) 오른 9만1000원을 기록했다.

개인의 폭발적인 매수세에도 커진 변동성은 우려로 꼽힌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인 매수세가 집중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업종 급등으로 장중 3200선도 돌파하는 저력을 보였으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며 “대형주 쏠림 현상이 강화되며 지수가 급등하자 일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개인 매수세가 크지 않은 종목들의 낙폭이 확대되는 등 장중 변동성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대 하락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11.16포인트(1.13%)내린 976.63에 거래를 마쳤다. /송태화 기자 alvin@